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공동체 김장을 마쳤습니다. 사역공동체 주방팀과 멋쟁이학교, 장신대 신대원 현장실천 학생들이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 이번 주간 공동체학교 여행 일정입니다.
꾸러기학교: 겨울여행 23일(수)-24일(목)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
어린이학교: 학년말여행 23일(수)-25일(금) 청주 운보의 집
멋쟁이학교: 6학년 졸업여행 21일(월)-25일(금) 일본 홋카이도
- 멋쟁이학교 학부모 모임이 오후 3시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형배 집사 · 오강자 권사 가정 (감사)
서금선 권사 가정 (감사)
인치명 권사 가정 (감사)
최창수 · 정혜옥 집사 가정 (어머니 장례)

강단을 꽃으로 : 정재훈 목사 (생일 감사)
이충환 집사 (생일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47 호

2022년 11월 20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성서일기와 성서모임의 회복을 기대하며

한국교회가 1960년대 이후 “잘살아 보세” 축복주의가 주류를 이루면서 교회 성장, 물질 추구, 신앙과 삶의 이중적 모습 등으로 세속화되면서 그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방공동체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개혁과 갱신, 새로운 교회상을 제시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향하면서 출발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방공동체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관되게 지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 성서일기와 성서모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1) 사랑방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2) 사랑방공동체를 이제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이끌고 지탱해온 과정이었습니다.
- 3) 말씀이 중심이 되어 개인, 공동체를 날마다 속아내어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입니다.
- 4) 귀납적 성경연구방법으로서 공동체의 고유한 영역이며 공동체와 장신대에서 30여 년간 강의 과목으로서 검증된 과정입니다.
- 5) 상호전달, 나눔으로 감동을 통한 신앙적 유대관계를 만들고 신앙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과정입니다.
- 6) 모든 문제를 새롭게 해결하고 회복해 가기 위해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유익함이 더 있을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유익함을 얻어왔고 얻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성서일기를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감격과 감동이 밀려옵니다.

30여 년을 지속적으로 성서일기를 해오다 보니 반복되므로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준비된 성서일기를 가지고 성서모임에 참여하여 나누면 말씀과 삶과 생각의 은혜는 기대 수준을 많이 뛰어넘습니다. 적은 투자로 열 배, 삼십 배, 육십 배의 결실을 맺는 굉장한 투자효율입니다.

그러기에 성서일기를 성실히 준비하는 것은 방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젊은이사랑방 시절부터 성서모임에 열심히 참여해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결혼 이후에도 어린아이들을 안고도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다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성서일기와 성서모임으로 인한 커다란 은혜는 지금까지 공동체를 지키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기에 성서일기와 성서모임 예찬론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격동하는 사회생활 속에서 날마다 성서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다는 사실에 공감합니다. 그 은혜가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팩트에 공감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명예총장이시고 우리 공동체에도 강사로 다녀가셨던 은준관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문제들을 지적하는 중에 소그룹 성경 공부가 없으므로 영적 문맹에 빠진 것을 지적하였고, 공동체를 배웠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비참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어려운 과정 속에 있습니다. 어렵지만 내년도에는 성서일기와 성서모임이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를 새롭게 하며 갈 길과 할 일을 잡아주는 기초적인 작업임을 함께 공유하며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탁합니다.

생활공동체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용신 장로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권재만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91 : 14-15 인도자
44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골로새서 1 : 13-14 인도자
390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히브리서 12장 25-29절 설교자
395 사랑방
“ 흔들리지 않는 나라 ” 권재만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412 다함께
516(1)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조향민 최신혜 / 봉헌위원 : 이어람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의 눈을 밝혀주소서.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

히브리서에서의 감사. 히브리서는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그분을 믿고 따르자 선포합니다. 12장은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징계를 허락하시는데 거역하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세상에 대부분의 것들은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흔들리는 것들은 없어지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과정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여행이 됩니다.

약속에 대한 감사. 우리는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들입니다. 기초가 바뀌니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요와 명예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그 안에 누리는 기쁨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모든 일과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과정들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석용범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난지도를 변화시켜 만든 평화공원 안에 있는 '에너지드림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석유나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그린에너지(태양, 물, 바람, 수소 등)에 대해 배우고 에너지가 생기는 과정을 체험해보았습니다. 해설하는 선생님께서 6살 어린 친구들이 잘 따라줄까 걱정하셨는데 꾸러기들이 정말 잘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칭찬하시며 다음에 꼭 다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요일에는 '찾아가는 기후학교' 선생님들이 오셔서 기후위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려주셨고 꾸러기들은 접고 접어 점점 줄어드는 신문지에 올라가 지구온난화로 힘들어진 북극곰의 마음을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체육시간에 훌라후프를 연습합니다. 작년 이맘때는 두세 바퀴를 돌리더니 이제는 모두 제법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봄에도 스스로 연습하던 여자 친구들은 더 잘 돌려서 훌라후프 두 개, 세 개를 한꺼번에 돌리거나 훌라후프를 돌리며 걸어다니며 몹시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 합니다.

오전에는 좀 쌀쌀하고 종종 공기도 안 좋아서 주로 안에서 놀입니다. 오후에 공기가 좋아지고 따스해지면 나가서 놀입니다. 목요일 금요일에는 학교에 놀러온 꾸러기 선배인 권윤서 언니(누나)가 오후에 함께 놀아줘서 더 재미있었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맑은 가을날입니다.

학교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 일찍 온 어린이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야구 경기를 하며 서로 환호하는 소리가 하늘에 울립니다. 한 쪽에선 트램블린을 타고 이제는 제법 커진 강아지와 노느라 뛰어다니기 바쁜 친구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 모습들이 예뻐서 일과를 시작하는 종을 치기가 망설여지기까지 합니다.

배움과 가르침

어린이학교의 월요일 1교시는 예배입니다. 각 학년에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설교는 어린이선생님 중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하시지만 가끔 멋쟁이학교에 계신 전도사님들이 하시기도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장영미전도사님께서 '다윗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어린이들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 온 맘다해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제탐험 시간엔 '찾아가는 기후학교'의 선생님 두 분과 지금 지구의 기후위기 상황과 우리의 할 일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이들이 대답을 참 잘 하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서 깜짝 놀라셨는데 알고 있는 만큼 생활에서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주에는 충북 청주시로 2박3일간 학년말 여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건강하고 안전한 여행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부탁드립니다.

< 교사 : 정다운 >

멋쟁이학교

지난주 멋쟁이학교는 매년 하는 김장을 함께 하였습니다. 수요일 오후 노작시간부터 시작되어 목요일 열린수업 시간에는 배추를 뽑고, 자르고, 절이고, 무를 다고 갖도 다듬는 등 본격적으로 김장 준비를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밖에서 옷에 흙 묻히며 콧물 흘리며 일했지만 그 모습이 재미있어 함께 웃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에 노래도 불러가며 즐겁게 일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귀엽고 기특했습니다. 목요일 밤과 금요일 오전에는 4, 5학년 멋쟁이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도왔습니다. 남학생들은 새벽에 일어나 배추를 씻느라 고생해 주었고, 여학생들은 아침부터 배추에 맛있는 양념을 버무려 넣었습니다. 옷에 고춧가루를 잔뜩 묻어도 내색하지 않고 열심히 버무렸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더운 여름에 풀 뽑고 비닐 덮어가며 기른 배추와 무를 가을에 추수하여 공동체식구들이 함께 먹을 김치를 담그는 일. 이것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어 감사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

< 교사 : 박예나 >

가을의 흔적

부쩍 쌀쌀해진 가을, 몸을 움추려들게 하는 날씨입니다.

요즘 여유롭게 화목난로 옆에서 따끈한 커피와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불멍이라도 때려야 할 것 같아요. 운동장에서는 어린애들이 재잘재잘 서로 뒤엉켜 자기들 놀이에 여념이 없고, 얼마 남지 않은 낙엽은 겨울이 다가옴을 알리는 것 같아, 높은 가을 하늘에 약간 췌치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가을은 단풍이 너무 짧게 왔다 가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하고, 요즘은 어느 때처럼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으니 하늘을 한번 쳐다보기가 힘드네요.

울긋불긋한 단풍 속에서 한낮의 기쁨도 잠깐, 수시로 치워주지 않으면 이곳저곳 구석에 박혀서 나오지 않은 낙엽, 더 지저분해지기 전에 공동체 전체 청소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매년 치르는 행사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네요.

많은 분들이 울긋불긋한 단풍에 가을을 만끽한다고 하지만 우리네 삶은 좀처럼 여유롭지는 않네요. 서로가 바쁘니까. 요즘은 겨울을 준비하는 작은 움직임이 있을 뿐입니다. 생활이 여유롭지는 못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기에 모두가 지치지 않고 응원과 기도에 의지하며 잘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힘들 때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쪽 어깨를 내어줄 그런 가족들이 있어서 말입니다.

8년 전 오랜 직장생활을 끝내고 막연하게나마 공동생활을 꿈꾸며 경험한 아름다운 추억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제 인생에 있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나를 더 성장하게 한 소중한 삶이었어요.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대한 감사 투성이인데 세월이 흘러 뒤늦게야 알게 되네요. 이제는 공동체 삼십여년이 넘는 긴 세월을 걸쳐 이곳을 스쳐 간 인연들을 떠올려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행복했던 삶이 바람에 흩날리는 저 낙엽 같은 것인지를... 잊혀질까 하는 노파심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가을 하늘을 쳐다볼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오래전 스쳐 지나간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었던 형제자매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공동체 그루터기사랑방 김중필 집사

<주요 정오기도회>

인도 : 정다운 전도사

찬송 : 588장 591장

성경 :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 1)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폭탄테러로 목숨을 잃고 다친 이들을 위해
- 2) 정치, 경제가 혼란한 튀르키예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 1) 새터마을 공동체의 건축을 위해 돕는 손길들이 더해지기를 위해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 1) 목요일에 수능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위해
- 2) 다음주 월~금까지 졸업여행을 다녀올 멋쟁이학교 6학년들을 위해

< 생활공동체 소식 >

드디어 진정한 겨울 대비! 공동체 김장을 했습니다. 목,금 이틀 동안 이뤄진 김장이지만 미리 필요한 재료들을 마련하고 작업장도 세팅하고 집기들도 씻어두면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장신대 '교회 밖 현장 실천' 수업으로 2박 3일 동안 공동체를 방문하신 신대원 2학년 학생 7분과 함께 한 김장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컸습니다.

공동체 식구들과 멋쟁이들 그리고 장신대 신대원분들까지 합세 하여 이뤄낸 아주 큰일이었습니다. 밤에 배추를 뒤집고 새벽에 씻는 일을 함께 하셨던 신대원 남학생들은 처음 해보는 것이라며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라는 어록을 남겼습니다. 공동체생활을 생동감 있게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김장을 통해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겨주신 덕에 이번 김치는 더욱 맛있었습니다.

겨울 날씨는 우리를 차갑게 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더욱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